

## 가정폭력 및 학교폭력이 청소년의 자살충동에 미치는 영향

김 정 란  
(광주여성재단)

김 혜 신\*  
(전남대학교)

본 연구는 가정폭력 경험과 학교폭력 경험이 청소년의 자살충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광주지역 중·고등학생 4,757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과거 1년간 전체 응답자의 31.1%가 자살충동 경험이 있으며, 51.1%가 부부폭력을 목격했고, 25.8%가 부모폭력을 경험했으며, 20.8%가 학교폭력 가해경험이 있었고, 22.3%가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청소년의 성별, 부부폭력 목격, 부모폭력 피해, 학교폭력 가해, 학교폭력 피해는 자살충동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셋째, 로지스틱회귀분석 결과 청소년의 자살충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성별, 학년, 부부폭력 목격, 부모폭력 피해, 학교폭력 피해였고, 그 중 가장 영향력이 큰 변인은 학교폭력 피해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여학생이며, 학년이 올라갈수록, 부부폭력 목격이 많고, 부모폭력 피해가 많고, 학교폭력 피해가 심할 때 자살충동 경험이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학교폭력 피해가 1단위 증가할수록 자살충동은 2.78배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요용어: 청소년, 자살충동, 가정폭력, 학교폭력

\* 교신저자: 김혜신, 전남대학교(kimhyeshin@nate.com)

■ 투고일: 2014.1.29    ■ 수정일: 2014.3.17    ■ 게재확정일: 2014.4.9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유명 연예인이나 사회 저명인사의 잇따른 자살보도는 사회적으로 자살에 대한 심각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실제로 통계청의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한국인의 자살률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2012년 전체 자살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28.1명으로 나타났고, 특히 청소년 자살은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10-24세 자살사망률은 8.3명으로 나타났다. OECD 전체적으로 볼 때 청소년 자살사망률은 1990년 7.9명에서 2010년 6.3명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같은 기간 5.9명에서 9.4명으로 증가하였으며 OECD 34개국 중 다섯 번째로 높은 청소년 자살사망률을 보여주고 있어(김기현, 2013) 그 문제성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청소년 자살은 특유의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특성으로 인해 성인들과는 다른 이유로 자살을 선택하는데, 충동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고(Brent et al., 1986), 장·노년층에 비해 우울이나 정신과적 질환에 의해 시도되는 경우가 많지 않으며(Sheidman, 1987; 김미경, 2010 재인용), 삶에 대한 완전한 포기보다는 가정과 사회에게 도움을 청하는 울음이라고 하였다(하상훈, 2000). 즉,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 의하면 어른들은 자살이 삶에 대한 포기의 한 표현이라면, 청소년들의 자살은 가정이나 사회에 도움을 요청하기 위한 몸부림이기 때문에 자아조절기능이 약한 청소년기에 사회적, 심리적 갈등상황이 생기거나, 과도한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할 때 자살이 극단적이고, 현실 도피적이고, 충동적인 문제해결의 한 수단으로 작용한다고 한다.

그리고 청소년의 자살이 증가함에 따라 국·내외에서도 청소년의 자살에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측면에서 변인들이 탐색되어 왔다. 선행연구들(Cole, 1989; 정혜경 외, 2003; 오현아, 2006; 오승환·이창한, 2010; 용미주, 2011; 이은숙, 2002)에서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중 우울은 가장 영향력 있는 변인이었고, 많은 연구자들(권은희, 2009; 김재엽·이근영, 2010; 김인규·조남정, 2006; 박병금·노필순, 2007; 박재숙, 2011; 전영주·이숙현, 2000; Beautrais, 2003)이 청소년 자살은 개인적 특성요인과 더불어 가족환경요인, 학교관련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가족의 경우 청소년 발달에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는 환경이지만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가족의 여러 요인이 자녀에게 일정하게 인지되는 것은 아니며, 영향력의 크기나 방향의 변화가 발생하고(노지은·김현주, 2013), 청소년의 자살충동문제는 가족문제와 직결되며, 가족 또는 가족환경이 청소년의 적응문제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Walters & Walters, 1999; 오운선, 2013 재인용)고 하였다. 그 중 특히 가정폭력 경험은 부정적 경험으로 자살시도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전영주·이숙현, 2000). 또한 청소년이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고 어울려 보낸다는 것을 감안하면 학교환경요인이 미치는 영향을 간과할 수 없는데, 청소년의 자살을 유발하는 학교환경요인 중 학교폭력 피해경험은 청소년의 자살시도를 일관되게 높이는 것으로 보고되며(Brunstein et al., 2008; 남영옥, 2013 재인용), 집단따돌림의 가해자집단과 피해자집단 모두 경험하지 않은 집단에 비해 자살생각이 더 빈번하게 나타난다(김광수·권용신, 2005; 최준영, 2007)고 하였다.

위와 같이 가정폭력 노출경험 및 학교폭력 경험과 청소년의 자살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은 다수 진행되어 폭력이 자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가정폭력 및 학교폭력을 동시에 독립변인으로 설정하여 이들 변인들이 자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남영옥, 2013; 신복기·이성진, 2012)는 드문 실정이다. 더구나 남영옥(2013)의 연구에서는 가정폭력 피해과 학교폭력 피해 자살생각이나 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신복기와 이성진(2012)의 연구결과 학교폭력 피해가 청소년의 자살에 직접적인 영향요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재검증이 필요하다 하겠다.

나아가 일부 연구자들(김현순·김병석, 2008; 오승환·이창한, 2010)에 의하면 청소년기에 자살생각이 높거나 자살을 시도한 경우, 생존했다 하더라도 무의식중에 그 생각이 잠복되어 성장과정에서 다시 자살을 시도할 위험이 높다고 하기 때문에, 이들을 사전에 발견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그리고 자살은 상황 발생 후의 치료적 개입이 불가능한 문제이므로 자살시도자나 자살의 위험성이 높은 대상자를 확인하여 관리함으로써 자살충동 및 시도를 감소시켜야 하며, 청소년 자살은 사후대책 마련보다는 예측된 자살 위험요인의 조절과 관련한 사전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정혜경 외, 2003).

따라서 본 연구는 가정폭력 노출과 학교폭력 경험 등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자살충동 경험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영향력을 탐색하고 가정폭력과 학교폭력이 청소년 자살의 예측변인임을 검증하고자 한다. 또한 가정폭력이나 학교폭력에 관심을 기울일 것을 촉구하고, 폭력에 노출된 청소년들을 위한 개입에 근거가 될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2. 연구문제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자살충동, 가정폭력 경험, 학교폭력 경험의 일반적 경향은 어떠한가?

둘째, 자살충동과 가정폭력 경험, 학교폭력 경험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셋째, 가정폭력 경험과 학교폭력 경험이 자살충동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 II. 이론적 배경

### 1. 자살충동

#### 가. 자살충동

자살(suicide)의 사전적 의미는 ‘행위자가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자신의 생명을 끊는 행위이다(두산백과). 프랑스 사회학자 뒤르켐에 의하면, 자살의 원인은 이기적, 애타적, 아노미의 세 가지 형태로 나뉘지는데, 이기적 자살은 개인과 사회의 결합력이 약할 때 자살이고, 애타적 자살은 사회적 의무감이 지나치게 강할 때의 자살, 아노미적 자살은 사회정세의 변화라든가 사회환경의 차이 또는 도덕적 통제의 결여에 의한다고 하였다.

자살은 현대에 와서 단순히 개인의 죽음이라는 차원을 넘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그동안 많은 연구자들이 여러 관점에서 청소년의 자살행동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 왔는데, 청소년의 자살행동은 “아동에서 성인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작용하는 생물학적, 심리학적, 사회적 및 문화적 힘의 상호작용에서 일어나는 어려움의 결과”로 이해되고 있다(홍영수, 2004). 또한 자살은 자살생각과 자살 시도, 실제 자살로 인한 죽음을 포함하는 표현이며 자살생각은 죽음에 대한 막연한 바람과 특정한 자살계획까지를 포함하는 자기보고적인 포괄적 개념으로 정의한다(공정석, 2001). 자살충동 또는 자살생각은 ‘자살을 행하는 것에 대한 생각이나 사고’(White, 1989)로 여러 학자들에 의해 자살을 예측할 수 있는 주요한 지표로 지적되고 있으며, 자살생각은 자살시도에 대한

선행하는 요인이 되므로 자살을 파악하는데 자살생각관련요인을 파악하려는 경향이 있고, 실제로 자살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서 자살시도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난다 (Brown & Vinokur, 2003; 권오균, 2013재인용). 특히 청소년들에게 있어 자살생각은 비교적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Potres et al., 2002)으로 자살시도를 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노혜련 외, 2012). 또한 자살시도는 고의적으로 실제적인 자해 등 죽으려는 명백한 의도를 가진 자기파괴적 행동으로 자살하기 위해 다양한 행동을 하지만 자살로 사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Evans et al., 2003).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자살충동은 사회화 과정에서 현실과 이상의 부조화를 부정적으로 대처함으로써 나타나는 적개심, 공격적 좌절, 분노로 반응하는 형태이며, 자살생각이나 계획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노윤채 외, 2012), 자살충동에서 자살행동으로 연결되는 하나의 연속선상으로 발전되거나 바로 자살시도로 연결될 수 있다고 본다(Carlson & Cantwall, 1982). 따라서 자살충동은 이후 자살시도에 대한 주요한 예언지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무엇이 자살에 대한 생각을 일으키는지 그 유발요인과 과정을 탐색하는 것은 청소년의 자살을 이해하고 예방하는데 중요한 작업이 될 것이다(Beck et al., 1979; 오윤선, 2013 재인용). 청소년 자살에 대한 연구는 자살에 대한 보다 예방적이고 실천적인 연구를 위해 자살생각과 시도를 모두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자살충동은 자살에 대한 생각, 동기 그리고 행동의 연속선상에서 이해될 수 있기에(오승환 · 이창한, 2010) 본 연구에서는 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남녀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살생각과 자살시도 여부를 통해 자살충동을 파악하고자 한다.

## 2. 청소년의 자살충동에 대한 관련 변인

### 가. 성별, 학년

성별에 따른 자살관련 연구들은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학교생활 부적응으로 인해 자살생각을 더 많이 한다는 연구(조윤숙, 2008), 자살에 미치는 영향은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높고(박재연, 2010; 최준영, 2008), 여자가 남자보다 더 많은 자살생각을 경험한다는 연구결과(김갑숙 · 전영숙, 2012; Robert et al., 1997)가 있다. 반면 Chang(2001)은 연령, 성별, 인종 및 학년 등의 인구학적 변인이 고등학생의 자살생각과 관련이 없음을

확인하였고, 또 다른 연구에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더 많은 자살생각을 경험하여 자살시도는 여자가 많으나, 실행은 남자가 많다는 증거(Henry et al., 1993; 홍영수, 2004 재인용)를 제시하고 있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청소년의 연령은 자살생각과 시도에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자살생각과 자살시도가 증가하며(Boeninger et al., 2010; 남영옥, 2013 재인용), 자살생각이 높은 청소년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자살생각이 구체화되어 자살계획이나 실행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크다는 연구들(김소영·홍세희, 2013)은 연령과 자살의 관련성을 보여준다. 연령은 또한 학년과 관련이 있기에 학년에 따른 자살생각은 높은 상관성이 있고(조성진 외, 2002), 학년이 높아질수록 자살시도가 많다는 연구(김현실, 2002)가 있다.

이처럼 일부 연구에서 상이한 결과를 보이고 있는 청소년의 성별, 학년을 중심으로 자살충동에 대한 영향력을 파악하고자 한다.

#### 나. 가정폭력 노출: 부부폭력 목격, 부모폭력 피해

가정폭력은 청소년의 육체적, 심리적, 사회적 측면을 포함하는 통합적 발달과정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최근에는 가정폭력에 대해 경험과 노출을 포함한 가정 내에서 폭력현장을 그대로 목격하는 간접경험까지 개념이 확대되고 있다(조미선, 2010). 가족의 구조적 측면에서 부모의 이혼 등으로 인한 가족구조의 변화는 청소년 자살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남영옥, 2013; 박병금, 2006), 가족구조의 변화는 자살생각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요인이며 부모와 부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부모가 자녀를 학대할수록 청소년의 자살시도가 높다는 연구(오승환과 이창한, 2010)가 있는 반면, 가족구조의 변화가 청소년의 자살생각과 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정익중 외, 2010)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 연구에서 가족은 청소년기 자살과 자살행동에 중요한 환경적 맥락이 되며(Johnson et al., 2002; 노지은과 김현주, 2013 재인용), 부정적 가족경험은 자살시도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전영주·이숙현, 2000).

가정폭력과 청소년 자살과의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들은 가정폭력에 대한 직접경험을 중심으로 탐색되었고, 일부 가정폭력에 노출이 되는 것에 해당하는 폭력의 목격 또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 내에서 부모폭력이 발생할 때 자녀가 이를

목격하는 내용과 정도는 광범위하며(Wyndham, 1998; 용미주, 2011 재인용), 부모의 폭력에 노출된 자녀는 학대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부부폭력 문제는 당사자뿐 아니라 자녀에게 오히려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다(Peled, 1997; 박병금, 2006 재인용). 또한 청소년들의 아동기 피학대 경험이 자살생각을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고, 학대를 경험한 집단이 경험하지 않은 집단보다 자살생각이 높으며(김미경, 2010), 자살행동의 원인을 규명한 연구에서 아동이 겪었던 외상 중 가족 안에서 이루어지는 학대경험이나 성폭력이 자살생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송지혜, 2009). 박병금과 노필순(2007)의 연구에서도 청소년이 가정에서 경험한 학대가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며, 부모-자녀 간 불화 및 학대가 중수준 이상인 집단에서 자살충동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노지은 · 김현주, 2013). 부모의 신체적, 정서적 학대는 자살생각을 비롯한 위태행동과 관계가 있으며, 정서적 학대와 방임은 자살생각과 행동과 관련되고(Nilsen & Connet, 2002; 김미경, 2010 재인용), 가족이 적응에 있어서 혼돈되어 있고, 가족체계가 극단가족범주에 속한 경우 즉, 건강하지 못한 가족의 청소년이 자살충동수준이 높다고 하였다(오윤선, 2013).

따라서 청소년의 자살충동과 가족요인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그 중 가족 내의 폭력은 부부 간 폭력을 자녀가 목격하는 것과 직접 자녀가 폭력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 모두에 있어 자살과 연결된다는 점에서 가정폭력의 간접경험과 직접피해의 경험 정도에 따른 자살충동의 영향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 다. 학교폭력 피해, 학교폭력 가해

학교폭력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현실에서 청소년기 학교에서의 또래집단으로부터의 폭력경험은 자살충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다수의 연구에 의해서 밝혀졌다. 청소년의 자살을 유발하는 학교환경요인 중 학교폭력 피해경험은 자살시도를 일관되게 높이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Brunstein et al., 2008; 남영옥, 2013 재인용; 박병금 · 노필순, 2007; 정용일, 2012), 학교폭력 경험이 많을수록 청소년의 자살생각과 시도가 많고(김재엽 · 이근영, 2010), 가해와 피해 모두 스트레스를 발생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고(백진숙, 2013), 친구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 자살충동이 높아지는(조미선, 2010) 것으로 나타났다. 정용일(2012)은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피해경험이 클수록, 자살생각이 많아지고, 학교폭력 및 집단 따돌림 등으로 원만한 교우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는 청소년은 자기 안에 간혀서 고립된 생활을 하므로 자살생각을 하게 된다고 하였다. 또한 친구들과로부터의 왕따 경험도 자살생각과 충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우혜선, 2008).

그런데 최근 들어 학교폭력의 해결을 위해서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지 않고 동시에 접근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즉, 학교폭력의 피해자이던 학생이 학년이 높아지거나 상급학교로 진학하면서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한 사람이 동시에 가해자이면서 피해자가 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Olweus(1993)의 경우 학교폭력을 폭력가해 행동과 폭력피해 경험 두 측면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장덕희(2007) 역시 청소년의 경우 가해와 피해 모든 측면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실제 일부 선행연구들(박경원, 2013; 신복기와 이성진, 2012; 최준영, 2007)은 가해집단과 피해집단을 동시에 연구대상으로 선정하고 있다. 이들 연구결과 집단따돌림은 피해경험과 가해경험 모두 자살생각을 높인다고 하였고(김광수·권용신, 2005; 박경원, 2013; 최준영, 2007), 신복기와 이성진(2012)의 연구에서는 학교폭력 중 폭력가해는 자살로 진행되는 반면에, 폭력피해는 직접적인 경로가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 역시 학교폭력 가해와 피해를 동시에 독립변인으로 설정하여 청소년의 자살충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고자 한다.

### Ⅲ.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 가.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는 2012년 10월 3일부터 10월 16일까지 실시된 ‘광주학생생활 종합실태조사(2012)’의 원자료를 재분석하여 진행되었다. 광주학생생활 종합실태조사는 광주광역시 거주 초등학생 4학년~6학년, 중학생, 고등학생 1학년~2학년을 연구대상으로 설정하고, 면접원들이 초·중·고등학교 74곳을 직접 방문한 후 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하여 자

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고등학교 3학년생의 경우는 대학수학 능력시험일이 얼마 남지 않아 부득이하게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수집된 원자료는 6,966명의 자료였는데, 본 연구대상인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중학생과 고등학생 표본만을 추출한 후, 부실기재한 자료를 폐기하고 총 4,757명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 2. 측정도구

가정폭력 및 학교폭력이 청소년의 자살충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성별, 학년, 가정폭력 노출경험과 학교폭력 경험을 독립변인으로, 자살충동 경험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하였다.

### 가. 독립변인

사회인구학적 변인은 성별은 남학생 0과 여학생 1로, 학년은 중1~고2까지 기입하는 단일항목으로 구성하였다.

가정폭력 노출경험은 지난 1년간 부부폭력에 대한 목격경험과 부모로부터 자신에 대한 폭력피해 경험을 조사하였다. 부부폭력에 대한 목격경험은 Straus 외(1996)가 개발한 The Revised Conflict Tactics Scales(CTS2)를 이용하여 심리적 학대 2문항, 신체적 학대 2문항, 총 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부모로부터 자신에 대한 폭력 피해경험은 김정란과 김경신(2004)이 사용한 척도 중 심리적 학대 2문항과 신체적 학대 2문항, 총 4문항을 사용하였다. 두 척도 모두 5점 리커트 척도(전혀 없었음 0점, 1년에 한두번 1점, 1달에 한두번 2점, 1주에 한두번 3점, 거의 매일 4점)로 점수가 높을수록 가정폭력 노출경험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부폭력 목격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Cronbach's  $\alpha=.80$ , 부모폭력 피해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Cronbach's  $\alpha=.71$ 로 나타났다.

학교폭력 가해경험과 피해경험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1)에서 사용한 학교폭력 척도에서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요인부하량이 낮은 성폭력 관련 문항을 제외하고, 따돌림과 서툰을 추가하여 최근 지난 1년간 '욕설이나 모욕', '폭행이나 구타', '따돌림', '강탈', '협박', '서툰' 등 6개 문항씩으로 구성하였는데, 가정폭력 노출경험과 마찬가지로 5점 리커트 척도(전혀 없었음 0점, 1년에 한두번 1점, 1달에 한두번 2점, 1주에 한두번

3점, 거의 매일 4점)로 점수가 높을수록 가정폭력 노출경험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교폭력 가해척도와 피해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모두 Cronbach's  $\alpha=.70$ 으로 나타났다.

## 나. 종속변인

종속변인인 자살충동은 지난 1년간 '심각하게 자살충동을 느낀 적이 있다'와 '자살시도를 해 본 경험이 있다' 등 2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그런 적이 없다, 한두번 경험했다, 가끔 경험했다, 자주 경험했다로 구분하여 0점~3점의 척도로 측정하였다. 자살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Cronbach's  $\alpha=.73$ 으로 나타났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는 응답범주를 전혀 없다=0, 있다=1로 전환하여 2문항 중 1문항이라도 '있다'로 응답 한 경우에는 경험이 있는 것으로 처리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 3. 분석방법

본 연구는 청소년의 자살충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SPSS 20.0 version을 이용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단일문항으로 구성된 변수를 제외한 나머지 변수들에 대해서 신뢰도와 빈도, 평균 등의 기술통계를 측정하였으며, 변인들간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청소년의 자살충동 경험에 가정폭력 경험과 학교폭력 경험 등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파악하기 위해 이분형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한 이유는 본 연구모형에 포함된 가정폭력 경험이나 학교폭력 경험 등의 독립변수들 뿐만 아니라 종속변수인 자살충동 역시 내용의 특성상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다중회귀분석을 할 경우 모형 적합도가 유의미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박성현 외(2011)도 독립변수들이 다변량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을 경우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분석방법으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추천하였다.

## IV. 연구결과

### 1. 연구대상자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연구대상자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표 2와 같은데, 성별로는 남학생이 52.6%(2,500명), 여학생 47.4%(2,257명)였으며, 중학생 43.3%(2,062명), 고등학생이 56.7%(2,695명)의 분포를 보였다.

가족유형은 양부모가족이 87.1%(4,142명), 한부모가족이 12.9%(615명)였으며, 양부모가족의 경우 맞벌이가족 87.1%(4,142명), 외벌이가족 25.0%(1,187명)이고 한부모가족의 경우는 한부가족 3.3%(155명), 한모가족 8.6%(410명), 조손가족 1.1%(50명)였다. 그리고 조사대상자의 평균 나이는 15.37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조사대상자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항목	구분	명(%)	항목	구분	명(%)	
성별	남학생	2,500(52.6)	학년	중등 1학년	663(13.9)	
	여학생	2,257(47.4)		중등 2학년	675(14.2)	
가족유형	양부모가족	4,142(87.1)		중등 3학년	724(15.2)	
	맞벌이가족	2,955(62.1)		고등 1학년	1,313(27.6)	
	외벌이가족	1,187(25.0)		고등 2학년	1,382(29.1)	
	한부모가족	615(12.9)		중학생	2,062(43.3)	
	한부가족	155( 3.3)		고등학생	2,695(56.7)	
	한모가족	410( 8.6)		평균나이	15.37세(SD:1.42)	
	조손가족	50( 1.1)				

### 2. 청소년의 자살충동 및 관련 변인들의 일반적 경향

연구대상자들의 자살충동 및 관련 변인들의 일반적 경향을 살펴보면 연구대상자들의 자살충동 평균점수는 0.26점이었으며, 자살충동을 한 번이라도 느꼈던 경험이 있는 경우가 31.1%(1,478명)였다. 부모님의 부모폭력 목격의 평균점수는 1.12점이고, 51.1% (2,430명)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부모로부터 폭력피해의 평균점수는 0.57점이며, 25.8%(1,229명)가 지난 1년간 부모로부터 폭력피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 피해 평균점수는

0.10점이고, 22.3%(1,062명)가 학교폭력을 경험하였다고 답하였다. 학교폭력 가해 평균점수는 0.09점이며, 20.8%(989명)가 학교폭력 가해경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구결과 청소년들이 지난 1년간 가장 많이 경험한 폭력유형은 부모님의 부부폭력 목격이었으며, 부모로부터 폭력피해, 학교폭력 피해, 학교폭력 가해 순으로 폭력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자살충동 및 관련 변인의 일반적 경향

변수명	문항수	최저값	최고값	평균(표준편차)	발생빈도(%)
자살충동	2	0.00	3.00	0.26(0.50)	1,478명(31.1%)
부부폭력 목격	4	1.00	4.00	1.12(1.32)	2,430명(51.1%)
부모폭력 피해	4	1.00	4.00	0.57(1.09)	1,229명(25.8%)
학교폭력 피해	6	1.00	4.00	0.10(0.26)	1,062명(22.3%)
학교폭력 가해	6	1.00	3.17	0.09(0.25)	989명(20.8%)

### 3. 청소년의 자살충동 및 관련 변인들의 상관관계

청소년의 자살충동과 관련 변인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성별은 모든 변인들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부모폭력 피해( $r=.05$ )와 자살충동( $r=.14$ )과는 정적 상관을 나타내고, 부부폭력 목격( $r=-.04$ ), 학교폭력 피해( $r=-.13$ ), 학교폭력 가해( $r=-.16$ )와는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즉, 남학생이 부부폭력 피해, 학교폭력 피해 및 가해 경험과 관련이 많고, 여학생이 부모폭력 피해와 자살충동 경험과 관련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은 부부폭력 목격( $r=-.13$ ), 학교폭력 피해( $r=-.14$ ) 및 가해경험( $r=-.13$ )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여, 저학년이 폭력노출 경험이 더 많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그리고 모든 가정폭력과 학교폭력 관련 변인들 간에는 유의미한 정적상관이 나타나 가정폭력과 학교폭력, 폭력 피해와 가해가 상호연관성이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자살충동의 경우 성별( $r=.14$ ), 부부폭력 목격( $r=.19$ ), 부모폭력 피해( $r=.14$ ), 학교폭력 피해( $r=.14$ ), 학교폭력 가해( $r=.07$ )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여학생인 경우, 부부폭력 목격이 많은 경우, 부모폭력 피해가 많은 경우, 학교폭력 피해가 심한 경우, 학교폭력 가해수준이 많은 경우 청소년의 자살충동 역시 심각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관련 변인 중 부부폭력 목격이 청소년의 자살충동과 가장 높은 상관을 보였다.

그리고 변인간 상관관계는 .00~.46의 범위를 보여 다중공선성 발생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표 3. 자살충동 및 관련 변인 간 상관관계

변인	성별	학년	부부폭력목격	부모폭력피해	학교폭력피해	학교폭력가해
성별†						
학년	-.07**					
부부폭력목격	-.04**	-.13***				
부모폭력피해	.05***	-.02	.42***			
학교폭력피해	-.13***	-.14***	.19***	.14***		
학교폭력가해	-.16***	-.13***	.16***	.12***	.46***	
자살충동	.14***	-.00	.19***	.14***	.14***	.07***

\*p<.05 \*\*p<.01 \*\*\*p<.001 / † 남성 0, 여성 1로 더미변수 처리

#### 4. 청소년의 자살충동에 미치는 변인들의 영향력

본 연구에서 설정한 변인들이 청소년의 자살충동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치고, 어떠한 변인이 자살충동을 증가시키는지 탐색하기 위해 이분형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성별, 학년, 부부폭력 목격, 부모폭력 피해, 학교폭력 피해, 학교폭력 가해 등의 6개의 독립변인들과 자살충동 경험을 경험없음을 0, 경험있음을 1로 이분화하여 종속변인으로 설정하였다.

이분형로지스틱 회귀분석의 변수선택은 입력 방법으로 이루어졌고 분석모형이 실시되기 전에 분석에 포함될 변수를 미리 알아보기 위한 score 검증을 실시하였다. score 검증은 분석이 시작되기 전에 어떠한 변인도 선택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특정값으로 고정된 것이 타당한지를 평가하는 방법이다. score 검증 결과가 유의미하면 그 변인을 모형에 추가하여 해당 계수를 추정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 결과 학년을 제외한 독립변인들이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 분석과정에 필요한 변인임을 예측할 수 있었다. score 검증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자살충동 경험관련 독립변인 score 검증결과

			score	df	sig.
0단계	변인	성별	88.14	1	.000
		학년	.06	1	.812
		부부폭력 목격	163.40	1	.000
		부모폭력 피해	94.87	1	.000
		학교폭력 피해	94.77	1	.000
		학교폭력 가해	26.20	1	.000
		전체 통계량		359.60	6

다음은 변수들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chi^2$  검증한 결과, 성별, 학년, 부부폭력 목격, 부모폭력 피해, 학교폭력 피해가 청소년의 자살충동 경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여학생일수록( $\beta=.76$ ) 자살충동 유경험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아지는데,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자살충동을 경험할 가능성이 2.13배 증가한다고 할 수 있다. 학년( $\beta=.08$ )의 경우 고학년일수록 자살충동 유경험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아지는데, 학년이 1단위 증가하면 자살충동을 경험할 가능성이 1.08배 증가한다고 할 수 있다. 부부폭력 목격( $\beta=.25$ )은 부부폭력을 많이 목격할수록 자살충동 유경험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고, 부부폭력 목격이 1단위 증가하면 자살충동을 경험할 승산이 1.28배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부모폭력 피해( $\beta=.09$ )의 경우 부모로부터 폭력을 당할수록 자살충동 유경험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는데, 부모폭력 피해가 1단위 증가할수록 자살충동을 경험할 가능성이 1.10배 증가한다고 할 수 있다. 학교폭력 피해( $\beta=1.02$ )는 학교폭력 피해가 심각할수록 자살충동 유경험집단에 속할 확률이 증가하는데, 학교폭력 피해가 1단위 증가하면 자살충동을 경험할 승산이 2.78배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본 연구모형 내에서 청소년의 자살충동 경험에 가장 영향력이 큰 변인은 학교폭력 피해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모형은 자살충동 유경험 집단과 무경험 집단을 70.5% 정도 정확히 분류하며, 청소년의 자살충동에 대해 10% 정도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학교폭력 가해를 제외한 가정폭력 경험과 학교폭력 피해는 청소년의 자살충동 경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자살충동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임이 확인되었다.

표 5. 청소년의 자살충동 경험에 미치는 변인들의 영향력

변인	$\beta$	S. E.	Wald	sig.	Exp( $\beta$ )	95%CI
여학생	.75	.07	123.04	.000	2.13	1.86-2.43
학년	.08	.02	11.14	.001	1.08	1.03-1.14
부부폭력 목격	.25	.03	86.32	.000	1.28	1.22-1.35
부모폭력 피해	.09	.14	8.77	.003	1.10	1.03-1.17
학교폭력 피해	1.02	.15	51.68	.000	2.78	2.10-3.67
학교폭력 가해	.20	.03	1.90	.168	1.23	0.92-1.64
상수항	-2.69	.16	11.14	.000	.07	
Concordant			70.5%			
-2 Log likelihood			5522.79			
Model $\chi^2$			358.72***(df=6 / sig= .000)			
Nagelkerke R <sup>2</sup>			.10			

\*p<.05 \*\*p<.01 \*\*\*p<.001

† 종속변인 : 자살충동 무경험 0, 자살충동 유경험 1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가정폭력 노출과 학교폭력 경험 등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자살충동 경험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영향력을 탐색하고 가정폭력과 학교폭력이 청소년 자살의 예측변인임을 검증하여, 가정폭력이나 학교폭력에 관심을 기울일 것을 촉구하고, 폭력에 노출된 청소년들을 위한 개입에 근거가 될 자료제공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광주지역에 거주하는 중학생과 고등학생 총 4,757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 청소년 31.1%가 자살충동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청소년의 자살충동은 성별, 부부폭력 목격, 부모폭력 피해, 학교폭력 피해, 학교폭력 가해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셋째, 청소년의 자살충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성별, 학년, 부부폭력 목격, 부모폭력 피해, 학교폭력 피해였다. 즉 여학생일수록, 고학년 일수록, 부부폭력 목격을 많이 할수록, 부모폭력 피해가 클수록, 학교폭력 피해가 클수록 자살충동 경험이 많았다. 그리고 학교폭력 피해가 가장 큰 영향력을 보였다.

본 연구결과를 근거로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자살충동 경험빈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응답자의 31.1%가 자살충동 경험이 있다고 하였다. 이는 기존 연구들(노혜련 외, 2012)에 비해서도 높은 수치로써, 자살이 매우 시급한 대책을 요하는 사회문제를 입증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학년이 올라갈수록 자살충동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중학생에 비해 고등학생이 자살생각이나 자살시도 경험이 많다는 기존연구들(박재연·정익중, 2010; 오승근, 2006)의 결과를 지지하였다. 따라서 사춘기에 접어들기 전부터 학생들의 자살행동에 대한 예방과 자살위험 상황에서의 대처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자살예방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자살위험 요인을 제거하는데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장기적이고 예방적 차원에서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둘째,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자살충동 및 자살시도의 경향이 높았다. 이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자살과 관련된 위험이 높다고 보고한 선행연구들(남영옥, 2013; 박재연, 2010; 오승환·이창한, 2010)과 일치하는 결과인데, 여학생과 남학생의 신체적·심리적 발달과정과 문제상황에 대한 대처방식의 차이가 하나의 원인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후속연구를 진행하여 성별에 따른 자살충동 및 자살시도의 메커니즘이 명확해진다면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자살예방 프로그램이나 심리상담 프로그램 등을 시행할 때에는 성별에 따라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

셋째, 부부폭력 목격과 부모폭력 피해와 같은 가정폭력 노출 정도가 청소년의 자살충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정폭력과 자살과의 관계를 분석한 선행연구들(노지은·김현주, 2013; 오승환·이창한, 2010; 전영주·이숙현, 2000)의 결과를 지지하였다. 이는 가정 내 부정적 경험이 청소년들에게 부정적인 심리정서적 상태를 유발하여 다양한 대처방안을 모색하는 능력이 부족한 청소년들에게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포함한 정책개발과 서비스 프로그램들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즉,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해소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이나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등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

넷째, 학교폭력 피해가 아동·청소년의 자살충동 및 자살시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폭력 피해가 청소년의 자살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갖지 않는다는 연구(신복기·이성진, 2012)와는 상반된 결과이지만, 자살의 강력한 위험요인으로 학교

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대다수의 선행연구들(김재엽·이근영, 2010; 남영옥, 2013)과 동일한 결과이다. 따라서 학교폭력 피해가 청소년의 자살을 예측할 수 있는 강력한 요인 이므로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과 사회적 노력이 시급하다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미 학교폭력에 노출된 경우에는 발생초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가정폭력이나 학교폭력은 청소년의 자살과 관련한 사회문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가정폭력은 개별 가정사로 취급하고, 심각하지 않은 수준의 학교폭력은 청소년 또래집단에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여기는 등의 폭력에 허용적인 사회적 인식 개선이 자살예방을 위한 선결조건인 것이다. 더불어서 인식개선 뿐만 아니라 가정폭력이나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이나 홍보를 강화하고, 폭력발생 시 이에 대한 강력한 법집행 등의 사후조치가 활성화된다면 폭력감소 효과뿐만 아니라 자살예방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마지막으로 후속연구를 위한 본 연구의 제한점과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실증적 사례를 통해 얻어진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직접 작성한 설문 조사를 통해 얻어진 결과이다. 따라서 청소년 자살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 모색을 위해 실제 자살충동 경험이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시도하는 질적 연구가 적극적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청소년 자살의 위험요인이 무엇인지, 그에 대한 대처방안은 무엇이었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김정란은 전남대학교에서 가정학 학.석.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광주여성재단에서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가족, 여성, 아동·청소년이며, 현재 한부모, 자녀돌봄, 여성건강 등을 연구하고 있다.  
(E-mail: kjn720918@daum.net)

김혜신은 전남대학교에서 가정학 석사, 생활과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전남대학교에서 시간강사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가족복지, 다문화, 가족상담이며, 현재 다문화, 한부모 등을 연구하고 있다.  
(E-mail: kimhyeshin@nate.com)

## 참고문헌

- 광주광역시교육청(2012). 광주학생생활 종합실태조사. 광주: 광주광역시교육청.
- 권오균(2013). 저소득 독거노인의 자살생각 인과모형에 관한 연구: 자아존중감, 우울감, 절망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사회복지학과, 숭실대학교, 서울.
- 권은희(2009). 청소년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심리사회적 요인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사회복지학과, 원광대학교, 익산.
- 공정석(2011). 부모 자녀간 역기능적 의사소통과 학업스트레스가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우울감의 매개효과와 성별차이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사회복지학과, 연세대학교, 서울.
- 김갑숙, 전영숙(2012). 청소년의 우울, 불안과 충동성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회지, 21(5), pp.903-913.
- 김경신, 김정란(2004). 가족기능이 자녀의 가정폭력 노출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회지, 13(5), pp.691-699.
- 김광수 · 권용신(2005). 청소년의 자살 인지양식에 대한 환경요인의 영향. 사회연구, 1(9), pp.221-248.
- 김기현(2013). 청소년 자살예방 정책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미경(2010). 청소년의 아동기 피해대경험, 자살노출 및 자살보도노출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목표불안정성의 매개효과. 석사학위논문, 교육학과 상담심리전공, 경남대학교, 창원.
- 김소영, 홍세희(2012). 초기청소년 자살생각의 변화유형분류와 예측. 한국청소년연구, 23(1), pp.251-275.
- 김인규, 조남정(2006). 청소년 자살생각에 대한 구조모형검증. 상담학연구, 7(4), pp.1189-1202.
- 김재엽, 이근영(2010). 학교폭력 피해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17(5), pp.121-149.
- 김정수, 노성덕(2003). 청소년의 자살충동과 심리사회적 변인과의 관계: 자아탄력성, 학교만족, 가족화목, 사회적지지 및 우울과 관련하여. 한양대학교 학생생활상담연구소 대학생생활연구, 21, pp.153-172.

- 김현순, 김병석(2008). 자살생각과 그 관련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 모형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2), pp.201-219.
- 김현실(2002). 청소년의 성격특성, 가정 역동적 환경 및 자살시도 간의 관계. 대한간호학회지, 32(3), pp.231-242.
- 남영옥(2013). 자살생각과 자살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청소년학연구, 20(11), pp.283-304.
- 노윤채, 신정숙, 박희서(2012). 정책적 시사점 도출을 위한 청소년의 학교폭력피해경험과 자살충동의 관계에 관한 연구 -가족지지와 친구지지, 교사지지의 조절효과 중심으로-.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17(8), pp.172-179.
- 노지은, 김현주(2013). 청소년의 자살충동에 대한 가족 영향력 분석. 미래청소년학회지, 10(4), pp.1-21.
- 노혜련, 이종익, 전구훈(2012). 초·중학생의 자살시도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에 관한 연구: 성별차이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4(2), pp.335-363.
- 박경원(2013). 청소년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학업스트레스와 집단따돌림 및 사회적지지-. 석사학위논문, 사회복지학과, 숭실대학교, 서울.
- 박병금(2006).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관한 생태체계요인 탐색. 박사학위논문, 가정학과, 충북대학교, 청주.
- 박병금, 노필순(2007). 우울에 따른 청소년의 자살생각 관련 변인: 우울청소년과 비우울청소년의 집단비교를 중심으로.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26, pp.168-193.
- 박성현, 김성수, 황현식(2011). 고급 SPSS 이해와 활용. 서울: 한나래출판사.
- 박재숙(2011). 학교위험요인이 청소년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Baumeister의 도피이론모형의 검증을 통해, 박사학위논문, 사회복지학과, 경북대학교, 대구.
- 박재연(2010). 학교폭력이 청소년 우울 및 자살에 미치는 영향에서 탄력성의 매개효과: 성별차이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1(1), pp.345-375.
- 박재연, 정익중(2010). 인문계 고등학생의 학업문제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아동복지학회, 32, pp.69-97.
- 백진숙(2013). 청소년의 학교폭력경험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지지와 자원봉사활동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서울.
- 송지혜(2009). 아동기학대경험이 청소년기 자아존중감 및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사회복지학과, 단국대학교정책경영대학원, 천안.

- 신복기, 이성진(2012). 청소년의 가정폭력, 학교폭력, 우울불안, 자살 간의 관계: 가정위탁, 양육시설, 쉼터, 보호관찰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한국민족문화*, 44, pp.281-318.
- 오승근(2006). 청소년 자살태도, 자살위험성 및 생명존중교육 참여 요구와의 관계. 박사학위 논문, 교육학과, 고려대학교, 서울.
- 오승환·이창한(2010). 청소년의 자살충동 결정요인 분석 -개인, 가족, 학교요인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범죄심리연구*, 6(2), pp.147-170.
- 오윤선(2013). 가족체계 유형이 청소년 자살충동에 미치는 영향 -기독교 청소년을 중심으로-. *복음과 실천신학*, 6, pp.220-239.
- 오현아(2006). 부모-자녀의사소통과 우울이 청소년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간호학과, 중앙대학교, 서울.
- 용미주(2011). 청소년의 자살생각과 관련변인 연구. 석사학위논문, 생활환경복지학과, 전남대학교, 광주.
- 우혜선(2008).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적 요인 검증 - 남녀청소년 비교를 중심으로 -. 석사학위논문, 사회복지학과, 연세대학교, 서울.
- 이은숙(2002). 청소년의 소외감, 우울과 자살생각에 관한 구조모형. 박사학위논문, 간호학과, 경희대학교, 서울.
- 장덕희(2007). 청소년 학교폭력의 중복특성과 요인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 연구*, 14(4), pp.69-97.
- 전영주, 이숙현(2000). 청소년 자살구상과 관련 변인분석. *청소년학연구*, 7(1), pp.221-246.
- 정용일(2012).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 환경적 요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교육학과상담심리전공, 창원대학교, 창원.
- 정익중, 박재연, 김은영(2010). 학교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의 자살생각과 자살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34, pp.222-251.
- 정혜경, 안옥희, 김경희(2003). 청소년의 자살충동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 *청소년학연구*, 10(2), pp.107-126.
- 조미선(2010). 가정폭력 노출경험이 초기 청소년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사회복지학과, 한세대학교, 군포.
- 조성진 외 8명(2002). 중·고등학교 청소년의 자살사고 및 자살시도의 유병율과 자살시도 위험요인에 관한 연구. *신경정신의학*, 41(6), 1142-1155.

- 조윤숙(2008). 청소년의 심리적 특성과 가족환경 및 학교생활부적응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가정교육학과, 동아대학교, 부산.
- 최준영(2007). 청소년의 집단따돌림과 자살관련 태도. *사회연구*, 14(2), pp.223-238.
- 하상훈(2000). 청소년의 자살충동과 심리사회적 변인과의 관계. 박사학위논문, 교육학과, 인하대학교, 인천.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1). 가족유형에 따른 아동·청소년 생활실태 분석 및 대책연구 - 한부모조손가정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홍영수(2004). 청소년의 자살행동에 대한 생활스트레스와 심리사회적 자원의 영향. 박사학위논문, 사회복지학, 연세대학교, 서울.
- Beasutrias, A. L. (2003). Suicide and serious suicide attempts in youth: A multiple group comparison study,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60(6), pp.1093-1099.
- Beck, A. T., Kovacs, M., Weissman, A. (1979). Assessment of suicide intention: The scale for suicide ideatio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7(2), pp.343-352.
- Boeninger, D., Masyn, K., Felman, B., Conger., R. (2010). Sex differences in developmental trends of suicide ideation, plan, and attempts among european american adolescent. *Suicide & Life-Threatening Behavior*, 40(5), pp.451-464.
- Brent, D. A., kalas, R., & Edelbrok, C. (1986). psychopathology and it relationship to suicidal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Psychiatry*, 25, pp.666-673.
- Brown, S., Vinokur, A. (2003). The Interplay among Risk Factors for suicide ideation and suicide: the role Depression, poor Health and loved one's Message of Support and Criticism.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32, pp.131-141.
- Brunstein, A., marricco, F., Kleinman, M., Sam, I., Gould, M. (2008). Peer victimization, depression, and suicidality in adolescents. *Suicide & Life-Threatening Behavior*, 28(1), pp.1-23.
- Carlson & Cantwall (1982). Suicidal behavior and depression in children and adolescent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Psychiatry*, 21, pp.361-368.

- Chang, E. C. (2001). Life stress and depressed mood among adolescents: Examining a cognitive-effective mediation model.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20(3), pp.416-429.
- Cole, D. A. (1989). Psychopathology of adolescent suicide: Hopelessness, coping beliefs and depressio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8(3), pp.248-255.
- Evans, G., Farberow, N. L., Kennedy, A. (2003). *The encyclopedia of suicide*(2nd). NY: Facts on Files Inc.
- Henry, C. S., Stephenson, A. L., hanson, M. F., Hargett, W. (1993). Adolescent suicide and families: An ecological approach. *Adolescence*, 28(110), pp.291-308.
- Johnson, J., Cohen, p., Gould, M., Kasen, S., Brown, J. & Brook, J. (2002). Childhood adversities, interpersonal difficulties, and risk for suicide attempts during late adolescence and early adulthood. *Achieves of general psychiatry*, 59, pp.741-749.
- Nilsen, W., Conner, K. (2002). The association between suicidal ideation and child and adult victimization. *Journal of child Sexual Abuse*, 11, pp.49-62.
- Olweus, D. (1993). *Bullying at School: What We Know and What We can do*, Cambridge: Blackwell.
- Peled E. (1997). Intervention with children of Battered woman: A Review of Current Literature. *Children and Youth Service Review*, 19(4), pp.277-299.
- Potres, P. P., Sandhu, D. S., Grice, R. L. (2002). Understanding adolescent suicide: A Psychological interpretation of developmental and contextual factors. *Adolescence*, 37(148)m pp.805-814.
- Robert, R. E., Chen Y. R., Roberts, C. R. (1997). Ethnocultural differences in prevalence of adolescent suicidal behaviors. *Suicide & Life- Threatening Behavior*, 27(2), pp.208-217.
- Straus, M. A., Hamby, S. L., Boney-McCoy, S., Sugarman, D. B. (1996). The revised conflict tactics scales(CTS2). *Journal of Family Issues*, 17(3), pp.283-316.
- Walters, J. & Walters, L. (1999). Parents child relationship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2.

- White, J. L. (1989). *The troubled adolescent*. New York: Pergamon Press.
- Wyndham, A. (1998). Children and Domestic Violences: The Need for Supervised Contact Serviced When Contact with the Violent Father is ordered/Desired. *Australian Social Work*, 51(3), pp.41-48.

## The Influence of Family Violence and School Violence on Suicidal Impulses in Adolescents

**Kim, Jeong Ran**

[Gwangju Foundation for Women]

**Kim, Hye Shi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suicidal impulses of adolescents influenced by family violence and school violence. The subjects in this study were 4,757 adolescents from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in Gwangju. The finding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ly, for the past year, 31.1% of all the respondents had experienced suicidal impulses and 51.1% of them had witnessed marital violence. 25.8% had experienced parental violence, 20.8% had inflicted school violence, and 22.3% had been victimized by it. Secondly, this research showed a correlation between suicidal impulses and gender of adolescents, witness of marital violence, parental violence, infliction and victimization of school violence. Thirdl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the influential variables significantly were gender, grade, witness of marital violence, parental violence, victimization of school violence and the most influential one was victimization of school violence. Specifically, when they were female, higher graders, witness marital violence more often, and suffer from more parental violence and school violence, they had felt more suicidal impulses. And it had been found that when victimization of school violence increase 1 unit, suicidal impulses increase 2.78 times more.

---

**Keywords:** Adolescents, Suicidal Impulse, Family Violence, School Violence